

경쟁에 썩든 한국 교육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여러 번 미국은 한국교육을 본 받아야 한다 했다. 외국에서는 한국 교육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나라를 불과 70년 만에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은 것은 교육이란 사실이 알려지고, 지금도 각종 국제 경시대회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올지도 하다.

그러나 국내의 평가는 사뭇 다르다.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우리 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지식교육에만 집착할 뿐 인성교육을 무시하고 사교육이 지나쳐서 공교육을 방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출산저하와 가난의 대물림 같은 사회악까지 초래한다고 걱정하고 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열심히 공부해도 돈이 없어 사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은 좋은 대학에 들어 갈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어 “개천에서 용 나는” 경우는 이제 옛날이야기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정치인, 언론인, 교육자, 학부모 등 거의 국민 모두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국가이고 국민이 한 목소리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도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누가 반대하고 방해하기에 온 국민이 비판하는 교육상황은 고쳐지지 않는가?



그 일차적인 이유는 교육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개혁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 절대다수는 다른 집 자녀들은 인성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자기들 자녀들은 그런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지식획득에만 전념하기를 바라고, 다른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기들 자녀들만은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왜 한국 교육에 대한 외국의 평가와 국내의 평가가 다르고, 왜 한국 학부모들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교육에서 자신들의 자녀들과 다른 자녀들에 대해 이렇게 모순되는 태도를 취하는가?

이런 괴리와 모순은 한국인에게 유달리 강한 경쟁심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에서 한국인만큼 경쟁심이 강한 민족은 없고, 그 강한 경쟁심은 한국인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게 만들어 역사상 가장 빨리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다. 전 세계에서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진 것은 한국이 처음이고 유일하다 한다. 그것은 천연자원이 많아서도 아니고 외부의 도움이 있어서도 아니다. 오직 경쟁에 이기기 위하여 끈질기게 노력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유교적 전통을 가진 사회, 현대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경쟁에서 승리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교육이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경쟁이 심한 한국 사회에서 교육경쟁은 특별히 치열할 수밖에 없다. 교육경쟁에서 이긴 자는 곧 인생의 승자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고 대학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종교적 열망의 대상이 되었다. 95점을 받고 3등하는 것보다 75점을 받아도 1등하는 것을 더 바라는 학부모는 한국에만 있을 것이다.

이런 비합리적인 경쟁심은 인성교육을 무시하고 지식교육에 모든 힘을 쏟도록 만들었다. 인성은 점수화할 수 없고 따라서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성을 전혀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도덕적 수준이 너무 낮아 어떤 주관적 평가도 신뢰를 받지 못한다. 수능고사에서도 사람의 평가를 믿지 못하므로 컴퓨터가 채점하고, 컴퓨터가 채점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모두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다. '찍기' 연

습 같은 비교육적 행위까지 자행되는 것이다. 지나친 경쟁심은 모든 한국인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여 매우 불행하게 만들고, 경쟁적일 수 없는 인성교육은 무시하고 경쟁적인 지식교육에 모든 힘과 관심을 다 기울이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 무시무시한 경쟁심은 어디서 오는가? 나는 그것이 한국문화의 차세중심적(此世中心的) 세계관(Diesseitigkeit)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한국인의 세계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교와 무속종교는 초월적 신도, 내세도 믿지 않는다.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이고 삶의 모든 의미와 행복은 이 세상에서 찾아야 하며 삶의 궁극적 목적도 이 세상에서 달성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는 것'(立身揚名)이다. 이름을 날리려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한다. 2등부터는 별로 유명해지지 않기 때문에 기를 쓰고 1등을 해야 한다. 거기다가 무신론이기 때문에 '마음 속 경찰'(police within)의 감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쉽게 위선적이 되고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상호신뢰가 약하다. 주관적 평가를 불신하는 것도 그런 문화 때문이다.

한국 교육의 성공과 실패는 모두 이런 세계관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몇 개의 제도만 바꾸면 교육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란 생각은 순진하기 짝이 없다. 세계관이 바뀌어야 해결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기독교의 책임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차세중심적으로 남아 있을 수 없고 이 추악한 아귀다툼의 한가운데 뛰어들지 말아야 한다. 더 많은 지식보다는 더 큰 사랑, 인내, 관용, 희생, 봉사가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참 행복을 가져올 것임을 믿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많아야 한국 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다. 